

제4대 연구원장 吳濟直 前공주대총장 취임

친화·순발력 소유한 교수 출신, 연구원 활성화 기대



제4대 충남발전연구원장에 오제직(吳濟直) 前공주대총장(62)이 취임했다.

신임 吳원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홍성고교·공주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성균관대 대학원(이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이학박사)을 거쳐 지난 1982년부터 현재까지 공주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대학에서는 대학원 교학부장, 기획연구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3대 공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면서 공주문화대학과의 통합을 성사시키는 등 전국 44개 국공립대학 중에서 10위권 대학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충청남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이사,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지역발전과 관련한 연구분야에서는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 의장, 충청경제사회연구원 고문, 지방대학육성특별법제정 특별위원회 공동의장 등 왕성한 활동을 벌여 지역민들에게 낯설지 않다.

전문가답지 않은 뛰어난 순발력과 친화력을 겸비한 학자로 '21세기는 굼어서 죽기보다는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죽게된다'는 신념을 갖고 국립 공주대학교를 변화의 주역으로 만들어, 각종 대학 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취미는 독서와 음악감상.

부인 문영자 여사와 1남을 두었다.

충남도, 「지역균형발전 정책방안」 세미나 개최

- 지방분권·분산·분업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한 74가지 제도개선방안 제시 -

충청남도는 15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沈大平 도시사를 비롯해, 대학교수, 국토연구원과 지방연구원 전문가, 시민단체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충남도 이외에도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그리고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가 공동 주관했으며, 특히 지난 7일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방안」을 국정 10대 과제로 선정·발표한 바 있어 발표 및 토론내용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충남도의 의뢰를 받아 「지역균형발전 정책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표환 박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을 크게 지방분권과 지방분산, 그리고 분업화 등 3분(分)전략에 바탕을 두고 모두 74가지의 장·단기 정책방안을 제시했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 沈大平 충청남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란 가장 약한 자와 가장 강한 자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무사항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역개발학회장인 하성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수도권집중으로 인해 국토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엄청난 국가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낡은 틀을 과감히 벗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김안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고,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인 김형기 경북대 교수 등 9명의 각계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까지의 지역균형발전방안 연구내용 중 미비점을 보완한 후 다음달 중 연구를 최종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道, 「신나게 기업 하는 충남 선언」 1년 성과

- 기업인·공무원 등 200명 참석 '1주년 성과 보고회' 가져 -

- 기업유치 36.1%, 기업생산량 9.6%, 수출 27.5% 증가 등 큰 성과 거둬 -

충청남도가 지난해 1월 「신나게 기업 하는 충남」선언한 이후 지속적인 기업지원시책을 펼친 결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나게 기업 하는 충남」선언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난 1년 동안 기업유치 36.1%(632 860업체) 증가 기업생산량 9.6%p(1.2% 10.8%)증가 수출27.5%(108억\$ 138억\$) 증가 및 무역수지 개선(24억\$ 53억\$) 산업단지 가동률 향상(91.0% 95.3%) 어음부도를 0.17%p(0.53% 0.36%) 감소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沈大平 충남도지사와 도내 기업인,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및 전문가 등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추진성과 및 정책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었으며, 제1부에서는 유공자 표창, 추진상황보고와 성공사례 등을 발표하고 제2부에서는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토론을 벌였다.

이날 시책추진 유관기관표창에는 당진군 등 7개 시·군이 선정됐고 민간인 표창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김용웅 회장 등 10명이 공무원 표창은 천안시 기업지원과 김명기씨 등 8명이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沈大平 충청남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성과도 많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인적자원과 과학기술 등의 투입요소 확보와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시책추진 2차 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국민경제의 주춧돌인 우리 기업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면서 "모든 기업인들이 신명나게 기업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어진「2003년도 주요추진 과제」설명에서 충남도 宋錫斗 경제통상국장은 올해 추진할 5대 역점시책을 기업관련 규제의 지속적 완화 공무원들의 기업지원 마인드 제고 기업을 키우려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지원 강화 경쟁력 있는 공장용지 확충 등으로 정했다"고 밝히며 "사업추진 주체별로 실현 가능한 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공사례 발표에 나선 (주)중외 조진영 건설본부장은 "당진에 공장 설립時 까다로운 인허가 등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원해 줘 무난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고 천안시 목천면 지산 2리 정대식 이장은 "부락에 입주한 기업과 상호 협조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 혜택을 보는 사례"를 발표했으며 예산군 고영세 지역경제과장은 "공격적인 투자유치 전략으로 대원전선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제2부 정책토론회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가운데 산업연구원 김인중 실장 등 전문가 2명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폭넓은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한무호 박사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추진상황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짧은 기간에 118개의 시책을 추진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정책의 목표와 그 실현수단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고용·소득증대, 지역특화산업육성,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한 지역경제 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산업연구원 김인중 박사는 "충남의 산업발전여건과 기업유치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공간적으로는 3각 테크노벨트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기업이 지역을 선택하는 시대에 부응한 산업 창출의 지역구상' 등 9가지의 기업유치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討論에서는 충청남도 송석두 경제통상국장, 정동창 중소기업청 대전·충남 출장소장,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 윤찬 세광섬유 대표, 정해순 여성경제인연합회 대전·충남지회장 등 8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을 벌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발전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기업하기 좋은 충남조성」을 위한 2003년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